빅데이터 시대와 근대 지식관의 문제*

김재오**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자본주의, 근대과학, 서구중심주의
3. 하이데거의 근대 과학관
4. 로런스의 상징적 사유와 '앎'의 문제
5. 인문학자의 길

【국문초록】

우리는 날마다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정보를 마주하고 있고,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축적되고 소멸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른바 '빅데이터' 시대란 다양한 정보 축적기술 및 분석 방식이 등장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근대 지식관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근대 과학의 본질은 조사연구(research)에 있고, 제한된 대상영역의 투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지속되면서 진정으로 새로운 앎 의 형성보다는 이미 알려진 지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14일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5회 영호남 4개 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연합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식의 축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보를 어떤 목적에 맞게 변환하고자 할 때, 여전히 인간의 해석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터인데, 이같은 인간적 동인들은 '빅 데이터'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문학의 개입과 실천이 빅데이터를 인간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선 월러스틴의 설명을 바탕으로 근대적 지식관이 형성되어온 경로를 추적하고 여기에 개제된 서구중심주의를 비롯한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살핀다. 그리고 나서 근대 과학의 본질을 좀 더 큰 지평에서 사유하는 하이데거의 지식관을 검토하면서 근대과학의 본질을 좀 더 큰 지평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나아가 하이데거의 논의와 여러 모로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소설가 로런스의 '상징적 사유'와 지식관을 소개하면서 근대적 지식관 이면에 묻혀 있는 참다운 '앎'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로런스의 사유를 거울삼아 빅데이터 시대에 인문학과 인문학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빅데이터, 지식, 근대과학, 조사연구, 인문학, 하이데거, 로런스

1. 들어가는 말

언제부터인가 학술용어로만 접하게 된 '빅데이터'란 말이 이제는 일상어가 되다시피 했다. 인터넷과 통신기기와 각종 디지털 정보수집 장치의 발달로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러한 정보를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특정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일은 이른바 정보화 시대를 특징짓는 인간 활동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같은 현상에 관한 학문적 접근도 활발하게 되었는데, 빅데이터를 단순히 양적인 관점에서만 정의할 수 없고, 다양한 변수들, 예컨대 속도, 관련성, 범위, 다양성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같은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빅데이터가 새로운 인식론적 변화를 가져왔느냐의 문제인데, 이는 쉽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인간 활동의 영역이 세분화 되어 있고, 각각의 영역에 맞는 인식론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인문학에 관한 한 빅데이터의 축적이 새로운 인식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빅데이터 분석이 일정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어디까지나 특정한 지식의 집적이고 다른 영역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접근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한 것이다.[1)]

물론 빅데이터의 활용이 인문학에 일정한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 다. 가령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만든 Wordseer는 문학연구를 위한 텍스트 분석 및 시각화 툴인데, 이를 통해 단어 빈도 추출이나 단어 네트워크 분석 혹은 문형비교 등의 결과물들을 제공하고 있다.[2)] 하지만 문학작품의 읽기의 경우 어떤 단어가 한 작품에서 얼마만큼의 빈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의 전체 구조와 그 단어가 사용된 맥락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 영역의 경우 사실과 지식을 데이터 형태로 축적하더라도 그 사실과 지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해석은 다시 그것들이 형성되는 맥락으로 되돌려져 이루어질

---

1) 빅데이터에 관한 논의는 Kitchin, Rob. "Big Data, new epistemologies and paradigm shifts," *Big Data & Society*, 2014(April-June), pp. 1-12 참조.

2) 이에 대해서는 김현, 김바로, 「미국 인문재단(NEH)의 디지털인문학 육성사업」,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34, 2012, p. 38 참조.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3] 제아무리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인문학에 활용되더라도 방편 이상으로 의미는 없으며, 인간 삶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인문학의 본질적인 성격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다.[4]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고는 빅데이터 현상이 근대과학의 연장이라는 전제 하에 근대적 지식관이 형성되어온 경로를 추적하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핀 다음, 영국의 소설가 로런스(D. H. Lawrence)의 지식관을 소개하면서 근대적 지식관 이면에 묻혀 있는 참다운 '앎'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2. 자본주의, 근대과학, 서구중심주의

먼저 근대과학이 학문의 총아로 떠오른 배경을 논하는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의 설명을 살펴보자. 월러스틴은 근대과학

3) 문학에서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구성된 하이퍼텍스트가 전통적인 문학연구, 이를테면 서지학 연구를 좀 더 편리하게 하는 방편이 되었지만, 이를 맹신하게 될 경우 문학적 상상력, 영감, 감수성 등 인간에게 고유한 정신작용을 체계적으로 배제할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 문학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찬길, 「정보시대의 시읽기: 워즈워스 시학과 하이퍼텍스트」, 19세기 영어권문학회, 『19세기 영어권문학』 3, 2000, p. 95 참조.

4) 인문학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인문학의 위상 자체가 상당히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대학구조조정 과정에서 겪는 인문학의 위상 추락은 제도적인 문제라 할 수 있지만, 학문으로서 인문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한 공격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 반체제 운동은 인본주의와 전체주의의 공모관계를 폭로하는바, 백인 중산층 남성의 대표성으로 치환된 '인본주의'가 나머지 사람들을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하여 무자비하게 처리하는 비인간적 야만성으로 귀결되었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서양의 인식론적 틀 자체를 탈신비화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은 서양 근대체제의 산물이자 이념적 기제로 비판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명숙, 『역사로서의 영문학: 탈문학을 넘어서』, 창비, 2009, pp. 20-21 참조.

을 "자본주의의 산물"로 규정한다. 근대과학이 사회적 생산성 향상에 "경이로운 수단"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인 활동들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수행되었고, "과학자들은 실제 세계에서의 구체적인 사회적 발전의 전망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회적 승인을 받게 되었다."[5] 이러한 상호 협력 속에서 복잡한 현실을 분석하는 한편, 그 배후에 깔린 규칙들을 정립하게 되는바, 뉴튼적 역학이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합리성'은 지적인 활동에 핵심어로 부상하면서 자연과학뿐 아니라 사회과학에서도 인간행위의 척도로 자리 잡는다. 이 개념은 낙관주의에 근거한다.

> 우리가 실제 세계에 대한 더 진실한 이해를 향해 감에 따라, 우리는 이를 통해 실제 사회를 더 잘 지배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의 잠재성을 훌륭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식을 구성하는 한 방식으로서 사회과학은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한 것만은 아니다. 사회과학은 합리적 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제시한 것이다.[6]

말하자면 '합리성'은 사회과학에 근거를 제공하고 사회과학은 합리성의 정도를 재는 방법론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월러스틴은 '합리성' 개념이 언제나 보편타당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령 베버(Max Weber)의 합리성 구분에서 '가치합리적 행위'(value-rational action)는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 안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한 행위는 주관적 필요성에서 나오며, 그 결과 역시 미리 합리적으로 계측될 수 없기 때문이

---

5) Wallerstein, Immanuel.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Social Scien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 1999, p. 140.

6) *Ibid*, p. 137.

다. 다른 한편, 월러스틴은 '실질적 합리성'과 관련된 쟁점들이 원래는 정치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지적인 개념으로 밀려나면서 정치성을 잃어버렸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합리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가치합리적인 선택들을 모호하게 만들고 실질적 합리성의 요구에 반하는 과정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이 이때 사회과학의 과제는 합리성 개념의 배후에 있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포위에서 벗어나 "실질적 합리성의 개념을 우리의 지적인 관심사의 핵심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월러스틴은 오늘날 우리가 학문활동을 통해 실현해야할 실질적 합리성이 "인간의 자유와 집단적 복리"을 증진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한다.[7]

하지만 이같은 목표는 월러스틴이 근대과학의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면서 내놓은 결론 치고는 다소간 맥이 빠진다 하겠다. 지식이 이른바 '담론적 관행'(discursive practice)이고 '권력'의 효과임을 폭로한 푸코(Michel Foucault)의 입론[8] 이래, 과학의 이데올로기성에 관한 비판은 여러 각도로 진행되어 왔다. 월러스틴의 비판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지만, 합리성 개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즉 '인간의 자유와 집단적 복리'를 위한 학문적 실천을 '실질적 합리성'의 개념으로 포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곳에서 공들여 비판한 '유럽적 보편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두쎌(Enrique Dussel)같은 학자가 월러스틴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타자의 입장을 강력히 내세우며 서구에서 나오는 대항담론보다 비서구에서 나오는 대항담론이 훨씬 비판적이며 해방적이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9]

---

7) *Ibid*, pp. 144-156.

8) Foucault, Michel. *The Archelogy of Knowledge & the Discourse on Language*, Trans, A. M. S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pp. 178-92 참조.

9) Dussel, Enrique. *The Underside of Modernity: Apel, Ricoeur, Rorty, Taylor, and the Philosophy of Liberation*, Ed & trans, Eduardo Mendieta, New

그런 점에서 타자의 입장에서 근대과학과 지식관의 '서구중심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바자이(Jatinder K. Bajaj)의 주장이 눈길을 끈다. 특히 자연과학이 가치중립성을 표방하는 만큼 인문학 보다 서구중심주의를 비판하기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의 서구중심주의 비판의 핵심은 가치중립성 자체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데 있다.[10] 그는 베이컨의 자연과학 방법론이 어떻게 서구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데 동원되었는가, 반대로 서구중심주의가 베이컨의 방법론을 어떻게 보편주의 이데올로기로 발전시켰는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에 따르면, 베이컨(Francis Bacon)의 자연과학 방법론의 특징은 실험을 통해 공리를 도출하고 도출된 공리로 새로운 실험을 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기존 공리를 수정해 나가는 데 있다.[11] 공리는 항상 수정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가능성이 새로운 실험을 이끌어 가는 내적 동력이 되는 셈이다. 실험과 공리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 수정하는 관계에 있는데, 문제는 이런 폐쇄적인 관계를 통해 공리가 수정된다기보다 다양한 공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이 공리는 종교에서 여러 학설이 범람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장의 우상'이 될 가능성을 그 자체에 내장하게 된다. 그래서 베이컨은 '새로운 귀납

Jersey: Humanities Press, 1996, pp. 136-137.

10) 이 논문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근대과학의 서구중심주의뿐 아니라 남성중심주의도 최근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령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내용과 과정에 남성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렇다. 이에 대해서는 Longino, Helen E. and Doell, Ruth. "Body, Bias, and Behaviour: A Comparative Analysis of Reasoning in Two Areas of Biological Science," Evelyn Fox Keller and Helen E. Longino (Eds.), *Feminism and Science*, Oxford: Oxford UP, 1996, pp. 73-90.

11) Bajaj, Jatinder K. "Francis Bacon, the First philosopher of Modern Science: A Non-Western View." Ashis Nandy (Ed), *Science, Hegemony and Violence: A Requiem for Modernity*, Tokyo: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1988, p. 30.

법'이 특수한 것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를테면 일체의 우상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그 방법론의 새로움을 주장하게 된다.[12]

그 과정은 이렇다. 첫 번째는 주어진 성질을 탐구하기 위한 실험 대상을 다 모아서 '존재와 현존의 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존의 표'의 실례들과 비슷하지만 주어진 성질이 없는 예를 모아 '편차의 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다음은 주어진 성질의 정도를 분간해내는 '정도의 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어진 성질의 형태에서 비본질적인 현상을 제거하는 '배제의 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바자이는 이 방법론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비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된다고 비판한다. 즉 연구하고자 하는 성질의 공리를 만들지 못했을 때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이 가설이 17세기 영국의 '극장의 우상'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론의 추구가 우상을 인정하는 데로 나가는 셈이다. 따라서 바자이는 베이컨이 과학혁명의 주도자라고 할 때, 그 이유를 그의 방법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의 사유, 이를테면 정치관, 윤리관, 학문관, 지식관에서 찾을 것을 제안한다. 베이컨은 새로운 과학이 "신적인 정신의 사본으로서 세상에 대한 진리의 충실한 재현"이기를 원했으며, 이후 과학사의 전개에서 베이컨의 과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근대 서구과학으로 발전한 것을 절대적이고 고유한 진리의 자격을 갖는다고 가정했다"는 점에서 베이컨은 서구의 진리관념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는 특정한 윤리관, 정치관, 지식관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베이컨이 지식에서 윤리(가치)의 문제를 배제하려 했지만, 이는 지식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진리는 지식으

12) *Ibid*, p. 32.

로 치환되고, 지식은 다시 힘과 유용성의 문제로 바뀜으로써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베이컨의 지식관은 바자이가 보기에 심각하게 도전받지 않고 근대 이후로 통용되었다. 쿤(Thomas Kuhn)의 입장도 베이컨의 근본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의 패러다임으로는 역부족인 위기의 상황에서 개념과 범주의 재조정이 일어나고, 이것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쿤의 주장이 과학 발전과정을 기계적으로 보는 베이컨의 사고와는 다르다는 점을 바자이는 일단 인정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쿤은 서구에서 발전한 근대과학이 '신의 필사본'은 아닐지라도 유일하게 타당한 실재의 재현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본다.[13]

바자이의 이러한 주장이 서구중심주의적 과학관 내지 지식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대과학의 성과 자체를 부정하는 데로 나간다면 이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학문이라는 인간 활동을 사회적 요구의 산물이나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투여되는 대상으로만 파악한다면 근대과학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사회적 요구나 이데올로기의 호명 없이도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성찰하며 이런 인간의 본원적인 활동의 결과가 과학과 지식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학문 활동의 근거가 이제는 고색창연한 '진리의 추구'라 할 때, 학문의 이데올로기성--특정한 진실이 보편적 진리로 통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일에 몰두하다보면 진리 개념 자체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궁극에 가서는 진리의 상대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하겠다. 베이컨 식 근대과학은 '실재의 재현'을 진리로 삼는 것이고, 바자이의 입장에서는 이는 이데올로기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자이가 우파니샤드 철

13) *Ibid*, pp. 40-45.

학의 진리관[14]을 대안으로 내세울 때, 이러한 진리관 역시 특수성에 기반 한 초월적 관념론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좀 더 넓은 지평에서 접근해야만, 근대과학의 성격이 뚜렷해질 것이며 그 성격의 변화와 함께 '진리'의 문제도 같이 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하이데거의 근대 과학관

근대과학을 넓은 지평에서 파악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것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사유다. 그의 근대과학에 관한 성찰은 과학과 진리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하이데거는 근대과학의 본질을 '조사연구'(research)로 본다는 점에서 월러스틴과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관점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근대과학에 관한 하이데거의 물음은 '본질'(essence)의 관점에서 제기된다. 물론 이 때의 '본질'은 그가 그토록 비판하는 형이상학적 의미와는 다른 성격을 띤다. 하이데거는 '과학'이란 말의 의미가 그리스어 어원인 'epistēmē'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근대과학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도의 관점에서, 즉 발전의 관점에서만 새로운 과학과 예전의 과학을 비교하는 버릇으로부터 탈피해야만 한다."[15] 하이데거에 따르면 근대과학의 본질은 조사연구에 있다. 그렇다면 "조사연구의 본질은 어디에 놓여 있는가?"

---

14) *Ibid*, p. 62.

15) Heidegger, Martin.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and Other Essays,* Trans, William Lovitt, New York: Harper & Row, 1977, p. 117.

> 앎은 존재하는 일정한 영역 내에서, 자연 혹은 역사에서 하나의 절차로 자리 매김한다는 사실에 놓여있다. 절차는 여기서 단지 방법이나 방법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절차는 이미 그것이 움직이는 열린 영역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조사연구에서 근본적인 사건은 정확히 그러한 영역의 열림이다. 이는 존재하는 일정한 영역 내에서, 가령 자연에서는 자연의 사건들에 대한 고정된 근본 윤곽도(fixed ground plan, Grundriss)의 투사를 통해 달성된다. 이 투사는 앎의 절차가 열려진 영역에 묶여 그 영역을 고수해야만 하는 방식에 미리 밑그림을 제시한다. 이러한 영역고수(binding adherence)가 조사연구의 엄밀성이다. 근본 윤곽도를 투사하고 엄밀성을 미리 규정함으로써 그 절차는 존재의 영역 내에서 자신을 위한 대상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16]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고정된 근본 윤곽도"가 주어지느냐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 윤곽도는 어떤 것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어진다. 가령, 물리학에서 운동의 시공간적 규모는 자연의 근본 윤곽도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자연의 사건들에 대한 재현 자체가 불가능하다.[17] 따라서 앎의 주체에 의해 이 윤곽도가 투사되는 만큼, 대상영역이 열리게 된다. 즉 윤곽도의 투사와 대상영역의 열림은 동시적인 사건으로서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조사연구가 엄밀성의 성격을 띠는 것은 이 투사에 의해 열린 대상영역 내에서 그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본 윤곽도의 투사가 조사연구의 방법론을 선험적으로 규정한다. 물리학에서 조사연구의 엄밀성은 정확함이 되는 이유는 측정이 시공간적 운동의 규모로서 자연의 근본 윤곽도의 본질적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근대 물리학의 내적인 논리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자연의 사건들이 최초의 투사의 정확함을 증명하기 위해 과학의 법정으로 소환되

16) *Ibid*, p. 118.
17) *Ibid*, p. 119.

고 그같은 투사는 자연의 사건들에 가시적인 실체를 부여하게 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상호보증 하에서 근대과학은 계속되는 활동이라는 성격을 띠게 된다. 실험을 통한 '법칙' 정립 과정이 그 예이다.

> 실험은 그 계획이나 실행에서 법칙을 입증하고 확증하거나 부정하는 사실들을 제시하기 위해, 정립된 근본적인 법칙에 뒷받침 받아 인도되는 방법론이다. 자연의 근본 윤곽도가 더 정확히 투사될수록, 실험의 가능성은 더 정확해진다.[18]

이러한 계속되는 활동이라는 성격 때문에 제도가 탄생하게 되고, 연구자들이 학자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이같은 과학의 역운(destining) 속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인간의 본질이 주체로 변하게 되는데, 주체란 그리스적 의미에서 '앞에 놓여 있는 것'(that-which-lies-before)이고 실제로 인간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주체로서 인간은 존재하는 것의 "관계의 중심"(relational center)이 된다. 이같은 변화는 존재(Being)와 진리에 관한 사유에서의 변화와 긴밀히 관련된다. 즉 어떤 것이라도 그 존재는 그 '대상성'(objectiveness)에서 찾아지고, 진리는 "표상의 확실성"(the certainty of representing)으로 변모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표상'은 존재에 관한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적 사유와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그러한 사유에서 "존재하는 것은 주관적인 지각의 성격을 띠는 표상의 의미에서, 인간이 그것을 처음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통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인간은 존재하는 것에 의해 지켜봐지는 자다."[19] 따라서 인간은 존재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스스로를 개방하면서, 존재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 아

18) *Ibid*, pp.121-122.
19) *Ibid*, p. 131.

니라 '통각'(apprehending)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리스인들에게 세계는 '상'(picture)이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근대과학의 특징인 표상적 세계인식은 어디에서 출발하였는가? 하이데거에 따르면 '형상'(edios)에 근거한 플라톤적 사유가 근대적 표상의 출발점이다. '형상'이 현존하는 모든 것에 우선성을 가짐에 따라, 세계는 '상'으로 파악된다. 그리스적 통각은 '형상'의 영역에 속하게 됨에 따라 그것이 '형상'을 표상하는 한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근대적 표상은 이러한 플라톤주의의 최종 판본인 셈이다. 여기서 인간은 표상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표상한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대상을 인간과 맞서는 어떤 것으로 끌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이후 규범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말하자면 인간이 현존하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상'으로 들어간다. 즉 일반적이고 공개적으로 표상된 열려진 영역 속으로 스스로를 집어넣은 것이다.[20] 이 과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인간은 현존하는 모든 것이 배우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무대 위를 관장하는 존재로 자신의 '상'을 정립한다. 인간은 스스로를 관계의 중심으로 대상화하고, 그 중심 주위에/중심을 향하여 현존하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그리스적 통각의 전도라 하겠다.

요컨대 근대과학은 투사와 대상 영역의 개방을 통한 계속적인 활동이라는 성격을 띠고,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사연구라는 특정한 형태의 지식활동으로 제도화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표상적 사유가 관철되는 과정이고 인간이 현존하는 모든 것의 관계의 중심, 이를테면 주체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지식(앎)은 주체의 투사를 통해 열려진 공간 안에서 수행된 조사연구의 결과물이 된다.

---

20) *Ibid,* pp. 131-132.

사실 이같은 과학적 지식이 웰러스틴이 말하는 '실질적 합리성'인 "인간의 자유와 집단적 복리"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과학적 지식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자본주의의 총아로서 지배의 도구 역할을 함에 따라 그 해방적 힘은 상당 부분 약화되었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되어 왔다. 또한 '통섭'이니 '융합'이니 하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결합된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들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앎'(지식)의 성격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과 성찰이 배제된 학문 패러다임의 변화 논의는 학문의 전통 자체를 일거해 소거해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 개혁의 과정에서 '인문학'이 처한 위치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문학자라면 우선은 '앎'의 문제를 상위 담론의 차원에서 제기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 고는 영국 소설가 로런스의 사유를 점검하려고 한다.

4. 로런스의 상징적 사유와 '앎'의 문제

로런스가 근대적 사유에서 개탄하는 것은 고대의 '감각-의식'(sense-consciousness)과 '감각-앎'(sense-knowledge)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르면 고대의 세계 인식 방식은 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같은 상징적 사유는 근대적 표상과 다르다. 이미지의 움직임이 인간의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정해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 혹은 상징은 본능적이고 자의적인 물리적 관계의 행렬 속에서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21] 덧붙여, 주체의 위치는 안정된 자리로 주어지

21) Lawrence, D. H. *Apocalypse and the Writings on Revelation*, Ed, Mark Kalnins, Cambridge: Cambridge UP, 1980, p. 91.

는 것이 아니라 상징에 대한 정서-반응(emotion reaction)에 따라 끊임없이 재설정된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인간의 사유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 그들[인간]에게 사유는 느낌-앎(feeling-awareness)의 완성된 상태, 즉 누적되는 것이자 깊어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느낌이 충만감이 들 때까지 의식 속의 느낌으로 깊어지는 상태이다. 완성된 사유는 소용돌이 같은 정서적 앎의 깊이를 헤아리는 것이었고, 정서의 소용돌이 가장 깊은 곳에서 결단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여정에서의 단계는 아니었다. 더 끌고나갈 논리적 사슬은 없었다.[22]

사유는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고도 강렬한 숙고를 통해 느낌이 앎으로 침전됨으로써 형성된다. 로런스는 이 과정이 신탁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상징에 대한 깊은 정서적 반응은 마치 위기의 순간에서처럼 결단이 도출되는 중심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23] 흥미롭게도 로런스는 이런 사유의 결여가 단순히 학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의 문제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삶의 한 영역인 '정치'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오늘날 어떠한 정치인도 이러한 강렬한 '사유'의 방식을 따를 용기가 없다는 사실이 오늘날 정치적 정신의 절대적인 결핍에 대한 이유이다."[24] 요컨대, 어떤 강렬한 감정을 차분하고 깊게 숙고해서 결단에 이르는 사유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정치 자체가 천박해지고 목전의 이해타산에 좌지우지된다는 진단이다.

---

22) *Ibid*, p. 93.

23) 로런스가 사유의 과정을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모두 걸고 감행하는 모험이며, 그 모험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Lawrence, D. H. *Reflections on the Death of a Porcupine and Other Essays,* Ed, Michael Herbert, Cambridge: Cambridge UP, 1988, pp. 216-218.

24) *Apocalypse and the Writings on Revelation*, pp. 93-94.

다른 한편, 로런스에서의 상징적 사유와 그리스적 통각을 비교해 볼 때, 후자가 존재의 개방성과 드러남이라는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전자는 인간의 반응에 상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같은 반응은 그리스적 통각보다 주관적인 지각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이같은 주관적인 지각이 앞서 언급한 표상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상징적 사유에서 이미지는 인간에 의해 구성된 '상'이 아니다. 그것은 일정한 "계획 혹은 구도"를 가진 "그림-도표"(picture-graph)이다. "본능적이고 자의적인 물리적 관계의 행렬 속에서", 그러한 구도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 이미지들 사이에 연관을 맺어주기 때문이다. 이미지들은 어떠한 특별한 원리나 질서 없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사라지지만, 이 이미지들을 하나의 의미의 연쇄로 만들어주는 것은 인간의 정서적 반응인 셈이다. 나아가 인간의 정서적 반응을 통해 이미지가 의미의 영역으로 상승할 때,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서적 반응은 수동적인 수용 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지각 행위이다. 상징이 역동적인 가치를 가지면 가질수록 정서적 반응은 더 적극적이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 사유에서 "모든 것은 뭔가를 한다."[25] 로런스는 이처럼 존재하면서 운동하는 것, 즉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그리스적 의미에서 신(god)이었다고 강조한다.

> 바로 지금 너에게 놀랍게 다가온 것은 신이다. 그것이 물웅덩이라면 바로 그 물웅덩이는 너에게 놀랍게 다가올 지도 모르고, 그 때 그것은 신이다. 푸른 어스름 빛이 갑자기 너의 의식을 차지할 수도 있다. 그 때 그것은 신이다. 저녁에 피어오르는 흐릿한 물안개가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 때 그것은 신이다. 혹은 물을 보았을 때 갈증이 너를 압도할 지도 모른다. 그 때 갈증 자체가 신이다. 혹은 네가

25) *Ibid*, p. 95.

> 물을 마시면, 그 달콤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갈증 해소가 신이다. 혹은 네가 물을 만졌을 때, 갑작스러운 냉기를 느꼈다면, 그 때 "차가움"이라는 신이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성질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실체이며 거의 생명체이고, 확실히 차가움이라는 신이다. 혹은 메마른 입술에 갑자기 뭔가가 내려앉는다. 그것은 "촉촉함"이고 역시 신이다. 초기 과학자나 철학자들에게 조차도 "차가움" "촉촉함" "뜨거움" "메마름"은 그 자체로 사물이고, 실재이자 신이었다. 그것들은 뭔가를 했다.[26]

인간과 사물의 경이로운 만남에서 사물의 사물성이 신으로서 드러난다. 이러한 신성은 사물 속에 내재하는 것도 사물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과 사물의 관계에 따라, 신성의 발현은 달라진다. 그것은 때로는 '차가움'이고 때로는 '뜨거움'이고 때로는 '메마름'이다. 따라서 이같은 세계에서 '관념'으로서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관념은 인간이 고립감과 고독감에 빠졌을 때, 다시 말해 인간과 우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도입되었다는 것이다.[27] 로런스는 이러한 단절로 인해 앎의 방식이 변하여 우주는 주체에 의해 파악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신이라는 관념의 도입은 우주와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사물 혹은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다시 말해 인간이 우주의 중심을 자처하면서 우주와 주변 사물과 자연을 지식 추구의 대상으로 밀쳐냄으로써 생겨난 결과인 것이다. 로런스에게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기독교와 관련하여 로런스의 비판은 유대-기독교 정신구조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상징적 사유를 붕괴시켰다는 사실에 있다.

---

26) *Ibid*, pp. 95-96. 강조는 원문.

27) 로런스는 개별적인 정신(pyche)의 발달은 개인과 외부 우주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파악한다. Lawrence, D. H. *Fantasia of the Unconscious and Psychoanalysis and the Unconsciou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1, p. 246.

가령 목마른 사람에게 물과 같은 즉각적인 선물이 "연기된 보상"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정신구조는 상징적 사유였던 것에 도덕적인 구도를 강요했던 셈이다. 로런스에게 이러한 알레고리적인 사유는 "정신 상태의 완전한 변모"[28]를 방해한다. 따라서 상징의 역동적인 가치는 상실되고, 그 대신 일종의 도덕극이 펼쳐지는 '무대장치'(mise en scene)가 들어선다. 모든 것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의미'하되, 그 의미는 도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인간의 정서적 반응은 고착되고, 도덕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것으로 변모된다 하겠다. 이를 근대적 사유의 특징인 '표상'과 연결시키면, 이미 알려진 '표상'이 그 이후 인간의 사유를 지배하게 되는 알레고리적 사유가 기독교적 정신구조에도 강력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그리스적 통각이나 로런스가 부각하는 상징적 사유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두 가지 사유 방식 모두 존재의 개방성과 타자성의 적극적 수용을 전제로 한다 하겠는데, 오늘날의 삶의 조건들은 이같은 관계맺음의 방식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 로런스 자신이 20세기 초반에 벌써, 가령 『연애하는 여인들』(Women in Love) 같은 소설에서 이러한 문제를 소상히 다루기도 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허마이오니(Hermione) 같은 인물은 모든 사태를 관념으로 재단하면서 다른 존재의 타자성을 배제하는 고질적인 두뇌의식의 소유자인데, 그녀의 이런 태도는 정보에 불과한 '과거의 지식'을 현학적으로 자랑하면서 타인 위에 군림하는 행태로 나타난다.[29] 미지의

---

28) *Apocalypse and the Writings on Revelation*, p. 97.

29) 이 소설은 등장인물들이 '앎'을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개체성의 성취와 관계맺음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앎'이 인식론의 범주가 아니라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오, 「『연애하는 여인들』에 나타난 '성'과 '일'의 문제」,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50, pp. 96-111 참조.

세계에 대한 창조적 인식이 결여된 지성이란 결국 자기중심성의 회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허한 내면을 보여줄 뿐 인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로런스에게 앎이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맺음을 통한 지각의 쇄신을 동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사실 앎의 문제는 앎의 주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대과학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조사연구로서의 근대과학의 본질이 인간이 현존하는 모든 것과의 관계에서 중심으로 떠올랐다는 하이데거의 언명도 결국 근대과학의 성격과 주체의 문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조사연구로서 근대과학의 정점이라 할 빅데이터 시대에 학문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즉 학자란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논의에서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진단을 참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니체의 글은 특유의 신랄함과 아이러니를 동반하고 있고, 니체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거의 100년의 간극이 있지만, 니체의 진단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5. 인문학자의 길

「우리 학자들」("We Scholars")란 글에서 니체는 동시대 학자들의 의무 태만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철학자'에 관하여 숙고한다. 현대의 학자들은 철학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이는 단지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근거한 자기찬양에 불과하다. 그들은 "전문가"를 자처하지만, "포괄적인 전망"을 갖출만한 능력을 소유하지는 못했다. 니체에게 '진정한 철학자'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시도와 유혹의 짐을 마다하지 않은 존재이다. 한마디로 그는 삶의 가치 창조자이자 판관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학자들은 '객관적인 인간'(objective man)으로 마치 거울처럼 "알려지기를 원하는

모든 것 앞에 굴복하는 데 익숙한" 존재다.[30] 니체의 이같은 진단에 따르면, 학자들의 몰락은 회의주의의 만연에 따른 의지의 약화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 인문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회의주의에 빠져 있고,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전망'은 고사하고 '각자도생' 하기도 벅찬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문학자라면 거의 모두 실감할 것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회의주의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 월러스틴의 지적처럼 오늘날 지식구조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분리라는 '두 문화' 개념의 영향력은 감소되었고, 지식의 가치중립성 역시 의심을 받아온 지 오래다. 이러한 국면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중요하다. "지식인들이라는 말은 현실에 대한 분석적 이해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그러한 이해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해왔다고 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월러스틴은 지식인들은 전문가적 지식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다방변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generalists)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31] 월러스틴은 이같은 성격의 지식인상을 사회과학자들에 요청하지만, 사실은 인문학자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인문학에 대한 회의가 만연하면서 각종 대안적 인문학이 사회적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문학자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32] 하이데거의 지적처럼 근대과학은 열려진 대상영역에서 끊임

30) Nietzsche, Friedrich. *Beyond Good and Evil: Prelude to a Philosophy of the Future*,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Books, 1966, pp. 126-127.

31)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 김재오 옮김, 『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창비, 2006, pp. 141-142.

32)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시민인문학의 이름으로 성행하고 있는 인문학 '열풍'은 대학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문학 교육의 위축을 염두에 두면 아이러니한 느낌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인문학의 사회적 요구와 대학 인

없이 이뤄지는 조사연구를 특징으로 하고, 어느덧 인문학에서도 이같은 방법론이 동원되어 하나의 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하지만 조사연구로만 시종한다면, 인간다움을 연마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궁구하는 인문학 본래의 성격과 역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저명한 로런스 학자이자 문학·문화비평가인 리비스(F. R. Leavis)의 언명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리비스는 과학기술의 변화가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인간의 필요와 복리를 단순화시키는 환원주의적인 기준이 득세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리비스는 자신이 '러다이트'(기계파괴주의자)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되는 시대에도 창조적인 지성의 꾸준한 집단적인 협동이 동반되어야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의식과 인간적 책임의 중핵으로 대학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영문학자로서 리비스는 문학작품을 통해 삶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문학비평이야말로 이러한 과제를 담당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어야함을 역설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는 인문학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감당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삶에 대한 판단이 리비스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내적인 본성과 인간적 필

문학 교육의 활로 찾기가 맞아떨어져 빚어진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학 내에서의 인문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문학은 성인들의 자기계발 욕구의 수단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인문학 열풍과 시민인문학의 공과에 대해서는 천정환, 「인문학 열풍에 관한 성찰과 제언: 시민인문학을 중심으로」, 영미문학연구회, 『안과밖』 38, 2015, pp. 100 -127. 한편, 인문학이 대학 내에서 '교양인문학' 형태로 변신을 모색하여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실용성 부족으로 퇴출위기에 놓인 인문학 전공의 경우 학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인문학적 감수성과 예지"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송승철, 「인문대를 해체하라!: '전공인문학'에서 '교양인문학'으로」, 영미문학연구회, 『안과밖』 34, 2014, pp. 172-73. 하지만 바로 이같은 주장이 '퇴출'의 논리적 근거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으며, 도대체 학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인문학적 감수성과 예지를 함양한다는 것이 가능한 목표인지도 모르겠다.

요에 대한 앎이라면, 인문학은 이러한 앎을 체계화하는 학문이고, 문학도 그 일부이기 때문이다.[33] 다음에 인용할 구절은 바로 이같은 인문학의 성격과 필요성을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유명한 화학자의--과학적인--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을 형성하는 세계는 아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인간의 협동적인 창조성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는 인간적인 가치와 중요성의 세계이자 실재이다. 이같은 창조성이 없이는 과학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화적 연속성(즉, 협동적인 창조성)이 지금처럼 실패하기 시작한다면, 인류는 향상된 민주적 복지국가에서 조차도, 기술공학적-벤삼적 문명의 방편들이 완화시키거나 예방하는 데 무능함을 드러낸, 알 수 없는 불만족과 불행과 갈망과 중독과 무질서로부터 고통 받기 마련이다.[34]

리비스는 과학도 인간의 창조성의 일부이고,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인간 세계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문화적 연속성이 없다면, 인간은 알 수 없는 불행과 불만족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삶에 대한 판단과 세계에 대한 이해는 끊임없이 갱생되는 인간의 협동적 창조성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인간적인 필요는 창조성에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물질과 제도로는 충족시킬 수 없고, 다른 방편들을 동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리비스는 살아있는 언어야 말로 변화하는 조건들에 대한 인간의 창조적 반응이고 계속되는 협동적 창조의 현현이라고 본다.[35] 결국 문학작품을 읽고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셈이다.

---

33) Leavis, F. R. *Nor Shall My Sword: Discourses on Pluralism, Compassion and Social Hope*, London: Chatto & Windus, 1972, pp. 94-96.

34) *Ibid*, p. 174-175.

35) *Ibid*, p. 183.

이러한 결론이 영문학 전공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감 가는 주장이지만, 인문학의 다른 분야 학자들이 여기에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인문학 활동의 기본은 문헌을 해석하는 일이며, 이 해석은 과거의 '언어'에 창조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된다. 또한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내적으로 연결하면서 '문화적 연속성'을 창출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인문학은 인간의 사유와 행위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다. 이 같은 활동은 로런스가 그토록 강조한 '상징적 사유'의 학문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연구가 학문적 방법론의 대세가 된 시대에도 이같은 방법론으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인문학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겠다. 인문학자들이 이러한 고유의 영역을 포기하는 순간 인문학은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인문학 교육이 과거의 문헌에 대한 섬세한 읽기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나와 타자,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할 때, 인문학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협동적인 창조성'을 통해 '삶에 대한 판단'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김재오, 「『연애하는 여인들』에 나타난 '성'과 '일'의 문제」,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50, pp. 95–114.

김현, 김바로, 「미국 인문재단(NEH)의 디지털인문학 육성 사업」, 인문콘텐츠학회, 『인문콘텐츠』 34, 2012, pp. 29–51.

박찬길, 「정보시대의 시 읽기: 워즈워스 시학과 하이퍼텍스트」, 19세기영어권문학회, 『19세기영어권문학』 3, 2000, pp. 89–114.

송승철, 「인문대를 해체하라!: '전공인문학'에서 '교양인문학'으로」, 영미문학연구회, 『안과밖』 34, 2014, pp. 148–176.

천정환, 「인문학 열풍에 관한 성찰과 제언: 시민인문학을 중심으로」, 영미문학연구회『안과밖』38, 2015, pp. 100-127.

Kitchin, Rob. "Big Data, new epistemologies and paradigm shifts," *Big Data & Society*, 2014(April-June), pp. 1-12

2. 단행본

유명숙,『역사로서의 영문학: 탈문학을 넘어서』, 창비, 2009.

이매뉴얼 월러스틴 지음, 김재오 옮김,『유럽적 보편주의: 권력의 레토릭』, 창비, 2006.

Bajaj, Jatinder K. "Francis Bacon, the First philosopher of Modern Science: A Non-Western View," Ashis Nandy (Ed), *Science, Hegemony and Violence: A Requiem for Modernity*, Tokyo: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1988, pp. 24-67.

Dussel, Enrique. *The Underside of Modernity: Apel, Ricoeur, Rorty, Taylor, and the Philosophy of Liberation*, Ed & trans, Eduardo Mendieta, New Jersey: Humanities Press, 1996.

Foucault, Michel. *The Archelogy of Knowledge & the Discourse on Language,* Trans, A. M. S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1972.

Heidegger, Martin.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and Other Essays,* Trans, William Lovitt, New York: Harper & Row, 1977.

Lawrence, D. H. *Apocalypse and the Writings on Revelation*, Ed, Mark Kalnins, Cambridge: Cambridge UP, 1980.

Lawrence, D. H. R*eflections on the Death of a Porcupine and Other Essays*, Ed, Michael Herbert, Cambridge: Cambridge UP, 1988.

Lawrence, D. H. *Fantasia of the Unconscious and Psychoanalysis and the Unconsciou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1.

Leavis, F. R. *Nor Shall My Sword: Discourses on Pluralism, Compassion and Social Hope*, London: Chatto & Windus, 1972.

Longino, Helen E. and Doell, Ruth. "Body, Bias, and Behaviour: A Comparative Analysis of Reasoning in Two Areas of Biological Science," Evelyn Fox Keller and Helen E. Longino (Eds.), *Feminism and Science*, Oxford: Oxford UP, 1996, pp. 73-90.

Nietzsche, Friedrich. *Beyond Good and Evil: Prelude to a Philosophy of the Future*, Trans, Walter Kaufmann, New York: Vintage Books,

1966.
Wallerstein, Immanuel. *The End of the World as We Know it: Social Scien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 1999.

(**투고일**: 2015. 11.4 **심사완료일**: 2015. 12.9 **게재확정일**: 2015. 12.11)

김재오
소속: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전화번호: 053-810-2130
전자우편: kjo5@yu.ac.kr

[Abstract]

The Age of Big Data and the Question Concerning the View of Modern Knowledge

Kim, Jae-Oh

We live in the world where the large amount of information is being accumulated on line by various smart devices. So-called 'the age of Big Data' centers around the assumption that the advanced information collection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tool can provide a viable knowledge for a real life situation. However, such an optimistic prospect is thought to be the extension of the view of modern knowledge. The essence of modern science lies in 'research' and this ongoing activity leads to the unlimited proliferation of knowledge. If we are to appropriate information to a specific purpose, we cannot but have recourse to the human agency such as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This paper is an attempt to search for possibility of humanities as a meta-discourse for the future dire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aking Wallerstein's critical approach to the construction of modern science as a working context, we make a fuller scrutiny of Heidegger's thinking on modern science which help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ing and truth on the horizon of the destining of Being. Furthermore, we address the question of knowledge in true sense with reference to Lawrence's 'symbolic thinking'. Following the track of Lawrence's reflections, we illuminate the path of humanities in the age of Big Data.

Key words: Big Data, knowledge, modern science, research, Humanities, Martin Heidegger, D. H. Lawrence